

‘국가시험 답지 파쇄’ 산업인력공, 기관경고·22명 징계

고용부,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책임자 비위 따라 중·경징계 등 조치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 통보

정부가 올해 4월 발생한 ‘국가시험 답지 파쇄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관련자 22명 징계를 명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실시된 산업기사 등 실기시험(61개 부문)의 필답형 답안지 600여 명분이 관리 소홀 등으로 채점 전 파괴된 바 있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시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를 포함해 최근 국가자격시험과정 전반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5월22일~7월19일 감사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건물. /뉴시스

를 강도 높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답안지 파기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와 별도로,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출제-시행-채점-환류 및 조직·운영 체계)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 명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며 “빠를 깨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조

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공단은 “자체 국가자격운영혁신TF를 운영해 오는 9월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려를 끼친 것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당시 사고 직후 공단 측은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시험 종료 후 포대에 담긴 시험장 답안지가 공단 서울 서부지사로 운반됐다”며 “이후 인수·인계과정에서 착오로 답안지 포대가 공단 채점센터로 인계되기 전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장애인고용공, 장애인 체육선수 선발 확대

농어촌공·전남도장애인체육회와 3자 협약 체결... 채용 방식 다변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도장애인체육회와 12일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청에서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협약에 따라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간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및 고용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22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 금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공공기관 중 해당 부문 고용을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채용방식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전남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체육선수 50명을 채용하게 된다”며 “육상·축구·탁구 등 16개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측 설명에 따르면 선수들에게 안정된 여건에서 전문체육인으로서의 기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포이들을 고용한 사업체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는 등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은 지역 장애인과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다.

조항현 공단 조항현 이사장은 “11월 3일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한다”며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확대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1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 사우디서 5000만弗 규모 성과

서틀경제협력단, 8건 협약 체결
스마트팜·식품·플랜트 기자재 분야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중동지역과의 농업 및 식품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파견한 제3차 서틀경제협력단이 지난 11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의 행사를 통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식품 분야 등 모두 8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틀경제협력단은 스마트팜, 식품, 플랜트 기자재 분야의 수출기업들로 구성됐고 사우디 진출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열린 기업 간 상담회와 농식품 시식회 등에서 한국 스마트농업과 식품에 대한 사우디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약 500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개최한 상담회에서는 스마트팜(12개사)·식품(4)·플랜트기자재(14)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기업 30개사와 사우디 측 업체 30여개사 간 총 270여건의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 총 3000만달러의 계약 추진액이 집계됐다.

상담회장 밖에 전시된 한국 농식품 시식회 부스에서는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스테비아도마토), 한국수출농산

물(사인머스켓), 가공식품(홍삼캔디, 라면) 등이 전시돼 상담회장을 찾은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케이-푸드를 직접 시식해본 사우디 업체들은 매우 우수한 평가를 보내 향후 중동지역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이다.

이날 한훈 차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 사우디 물환경농업부 관계자들을 비롯 국내 기업 26개사, 사우디 기업 60여개사가 함께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우디 투자부는 직접 자국 진출을 위한 정책을 소개했고, 지난 6월 사우디 스마트팜 복합단지 구축사업을 수주한 우리 기업 드림팜이 진출 시 애로 사항 및 해결 방안 등을 공유하는 발표 시간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훈 차관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중동의 스마트팜·식품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수요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스마트팜, 식품 등 케이-푸드 플러스분야가 신(新)중동분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12일에는 사우디 물환경농업부 알 무사이티 차관과 회담을 갖고, 스마트농업 등과 관련한 정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차상근 기자 skc8472@

환경부

온실가스배출권 이월물량 확대 공청회

이월 제한, 배출권가격 변동성 ↑
탄소감축 투자요인 저해 지적

환경부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중소기업디엠씨 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일 정부 설명에 따르면 그간 온실가스배출권의 이월 제한이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변경안은 ‘이월 물량’을 확대하는 등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에서 비롯됐다.

이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변경안에는 또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및 배출 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도 들어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할당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부 발표 후 산업계와 발전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어진다.

환경부는 “공청회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실시간 온라인 중계(환경부 유튜브)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9월13~15일)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초순수 플랜트 등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 선정

환경산업기술원과 공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2일 ‘2023년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우수 기술을 선정해 공개해 왔다. 또 환경 분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인다는 효과도 있다.

올해의 우수성과 20선 기술은 물 관리와 자원·토양, 생태·보전, 기후·대기 등 4개 분야에서 선정됐다. 국민 5000여 명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책 참여 누리집을 통해 투표에 참여했다.

물관리 분야 최우수 기술은 국내

설계기술로 완성한 초순수 실증 설비(플랜트) 기술(한성크린텍(주))이 선정됐다. 이 기술은 그간 해외기업이 독점해 온 초순수 생산 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83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

자원·토양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13~18% 줄이면서 강도 및 가스(탄산) 차단성을 기존 페트병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페트병 생산 기술(삼양패키징)이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켰으므로 기존 대비 약 20%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다.

생태·보전 분야에서는 공기 중 바이러스를 현장에서 실시간 감출하는

기술(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뽑혔다. 이 기술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휴대용 장비로 공기 중 유해인자를 측정해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후·대기 분야는 동북아 규모(국내 포함)의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원인물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건국대)이 선정됐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감축, 이동,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